

작은 골목 작은 갤러리... “새로운 작가 발굴하는 공간”

싱가포르 차이나이즈 오케스트라

담양에 문예 ‘갤러리 아트 14’

담양군 담양읍 관광제림 인근 골목길에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리제 갤러리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전과 초대전을 진행했던 박은지 큐레이터가 마련한 공간이다.

예전 칩선공방으로 사용되던 곳을 리모델링한 ‘갤러리 아트 14’ (담양군 담양읍 객사 4길 19)는 소박하다. 개인 갤러리 운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박 대표는 지난해 담양 수북으로 집을 옮기면서 담양에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하던 중 담양군 담빛길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돼 내부 인테리어와 간판 등을 지원받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개관전은 ‘박은지 소장전’이다.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박 대표는 그림을 하나 둘 구입했고 이번에 그 작품들을 선보이며 갤러리 출발을 알리고 있다. 전시에는 처음 구입했던 이선희 작가부터 기명진·김동인·노여운·박진아·서현호·이인성·장미란·채지은·박진아·호준·조강수 작가 등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산과 자연,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이다. 전시를 준비하며 살펴보니 구입한 작품에 흐르는 공통적인 느낌이 ‘자연을 생각하는 인간’이었고, 앞으로 갤러리의 지향점으로 삼으려 한다.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장에서 매일 매일 바라보던 그림 중에서 하나 둘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전시를 끝내고 나서도 생각나는 작품들이기도 했구요. 아무래도 젊은 작가들 작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질만능 시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모은 작품 역시 의식하지 않았는데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군요.” 박 대표는 갤러리를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공연, 예술체험, 아트포럼 등이 열리는 복합공간으로 꾸미려 한다. “익숙한 이미지 대신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시각적 경험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담양군 담양읍에 문을 연 ‘갤러리 아트 14’의 개관기념전(5월31일까지)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지 대표의 소장작품으로 꾸며졌다.

박은지 큐레이터, 담양 담빛길 창작공간 지원사업 선정

31일까지 ‘박은지 소장전’... 공연·체험·포럼 등 복합공간으로

새로운 작가들도 많이 발굴하고 싶습니다.” 다음 전시로 기획중인 오정하 환경판화전(6월 3일-15일)은 낙엽 등 자연의 소재를 이용해 판화를 만드는 작업을 소개하는 전시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생각이다. 또 미디어 아티스트로 현재 서울 대림미술관에 근무중인 동생 박승혁 작가의 애니메이션 작품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고려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한 박 대표는 졸업 후 KBS 방송 작가로 일하며 ‘KBS 스페셜 탐’에서 ‘김대중과 고르바초프 대담’ 등 6편을 제작했다. 2006년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 머문 후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조선대 미학미술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갤러리 리제 큐레이터로 근무하며 50여회 전시회를 기획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조선대 미술관장 김익모 교수 전시를 큐레이팅했다. 이번 전시작 중에는 정우범 작가 등 중진작가의 작품도 눈에 띈다. 담양군청소년수련원장으로 근무중인 아버지가 수집한 작품이다. 박 대표 가족은 언젠가 담양 산 속에 소박한 미술관을 짓는 꿈을 갖고 있다. 이번 갤러리가 그 작은 출발점일지도 모르겠다. 월요일 휴관. 화·금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토·일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문의 061-383-064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10일 문화전당 극장 1... 전월선 협연

이건용 곡 ‘5월을 위한 장엄 서곡’ 초연

전통 예술·문화를 보존하며 남 아시아 악기들의 협주를 선보이는 ‘싱가포르 차이나이즈 오케스트라’ (Singapore Chinese Orchestra, 이하 SCO) 공연이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펼쳐진다. SCO는 1997년 설립된 싱가포르의 유일한 국립 차이나이즈 오케스트라로, 80명이 넘는 뮤지션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9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오프닝 주간 공연을 한 첫 중국인 오케스트라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2월 첫 문을 연 소프라노 전월선 ‘2019 ACC 슈퍼 클래식’으로 기획된 공연이며, 작곡가 이건용, 소프라노 전월선, 통일대금 연주자 최민, 신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등 세계적인 음악인들의 협연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자 Arko 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인 이건용 작곡가의 ‘5월을 위한 장엄 서곡’ (Majestic Overture for May)을 세계 최초로 무대에 올린다. 또 에릭 왓슨의 ‘정상에 오르다’와 김희정 작곡가의 ‘아리랑 불러썸’도 연주한다.

합계 하는 음악인들도 눈길을 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소프라노 전월선은 지난 1985년 평양 공연을 비롯해 도쿄오페라단 등에서 ‘나비부인’, ‘살로메’, ‘춘희’ 등 작품의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또 시카고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지난 2012년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일본 자선 콘서트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중국 연변 출신의 통일대금 연주자 최민은 중국 제2회 국가급 문화예술정부가 문화장 민족악기콩쿨 1위를 수상했으며, 국립극악관현악단과 한국 최초의 통소를 위한 협주곡 ‘만파식적의 노래’ 협연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연에서 전월선은 가곡 ‘임진강, 고려산천 내사랑’을 들려주며 최민은 황호준 작곡가의 통일대금 협주곡 ‘꿈꾸는 광대’, 대니 구는 헤잔하오·첸강의 ‘버터플라이 러버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사한다.

전석 무료. 문의 1899-5566.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어른들의 아트 토이 ‘키덜트’ ‘토이스토리’ 전, 28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장난감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키덜트(Kidult) 문화 확산과 함께 그 놀이문화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대 작가들 역시 회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장난감과 그 문화를 재해석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가정의달을 맞아 전시 ‘토이 스토리: This is NOT a TOY’ 전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개성있는 장난감을 주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풀어가는 10명의 작가(팀)가 참여했다. 안광노(x이현희), 왕지원, 윤정미, 이사라, 이지수, Fori Sim, 홍석민 등으로 정크 아트, 키네틱 아트, 직접 제작한 아트 토이 장난감들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장난감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분홍색을 특히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파란색을 선호하는 남자아이를 그들이 소유하는 물건들과 함께 촬영한 윤정미의 사진 작품 ‘핑크 & 블루 프로젝트’ 시리즈는 아이의 성별에 따른 문화적 선호와 취향의 차이 그리고 그 변화를 보여준다. 세밀한 스크래칭으로 동물 인형을 회화와 입체로 표현하는 이사라의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이현희 작 ‘부다캣’

잊혀진 파스텔 동심의 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이지수는 어른들에게 그럴듯한 성숙함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가면을 쓴 캐릭터를 통해 표현했다.

페폼, 버려진 장난감을 재활용해 로봇 작품으로 업사클링한 ‘Fori Sim’은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안광노와 이현희는 ‘인어아재’, ‘꼭두각시’, ‘부다캣’ 등의 유머러



베어브릭

스한 캐릭터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 팝아티스트 커즈(KAWS)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 작품과 대중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베어브릭(Be@rbrick)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360-1631. /김미은 기자 mekim@

121번째 ‘우리가곡부르기’

10일 광주예총회관 공연장

한국의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10일 오후 7시 서구 광주예총회관 C동 방울소리공연장에서 121번째 공연을 갖는다. 이날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로, 어머니를 향한 사모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배울 노래로는 부회장인 박원자 시인이 쓰고 한국가곡합창단 등 여러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윤교생 작곡가가 곡을 만든 ‘아름다운 이름 하나’가 준비돼 있다.

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추억, 정다운, 사랑의 3번의 순서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 ‘과수원길’, ‘절레꽃’, ‘정산에 살리라’ 등 8곡을 함께 한다.

시낭송은 노경호 낭송가가 계절에 맞춰 김영랑 시인의 ‘5월 아침’을 낭송하고, 광주시 교육청 음악영재교육원 교수 바리톤 이하석을 초대해 박원자의 시에 하오주가 곡을 쓴 ‘오대산 월정사’와 김효근의 ‘첫사랑’을 무대에 올린다.

또 73세 이상의 성악가 7명으로 구성된 ‘한마음 시니어 중창단’을 비롯해 바리톤 기세관·테너 김해룡 등 11명의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회원 연주 시간도 이어진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유연제 기자 yjyou@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